

창작의 산실을 가다 (1) 소설가 한승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엔 땀과 눈물이 가득하다. 작업실은 수많은 좌절을 딛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군 생생한 현장이다. 지역 출신 중견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찾아간다. 그 곳은 다양한 작품을 잉태한 현장이자 예술가들을 길러낸 공간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예술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작가들이 우리에게 건네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창작의 산실을 가다'를 시작한다.

“해산토굴서 글 쓰는 건 나의 존재 의미이자 운명”



소설가 한승원(70)이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장흥으로 돌아와 집필실 '해산토굴'을 지은 게 13년전이었다. 지금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는 하지만 낙향한 한 씨는 건강을 되찾았고,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내 의지로 나를 가둔 공간'인 '해산토굴'에서 끊임 없이 작품을 쏟아냈다.

2008년은 한 씨에게 뜻깊은 한해였다. 등단 40주년과 고회를 맞았고 한승원 문학학교 '달 길의 집'도 개관했다. 아스라히 바다가 보이는 해산토굴에서 만난 한 씨는 아내가 직접 뒤는 녹차를 권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열심히 썼지만 이제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겐 기회가 많지만 나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깐. 난 수확의 계절을 맞고 있어요. 작가가 작품다운 작품을 쓰면 쓰면 그게 풍년이지요. 글을 쓰는 건 나의 존재 의미고 운명입니다.”

한 씨 작품의 가장 큰 축은 '바다'다. 데뷔작인 '목선'을 비롯해 '망명구리배', '물보라', '키조개' 등이 모두 고향 장흥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바다는 원초적인 인간의 고향으로의 바다죠. 신비, 신화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생명력의 바다라고 할까요. 젊은 시절 제가 작품에서 꿈꿨던 바다가 희망으로의 바다, 삶의 터전으로 바다였다면 지금은 화염의 바다를 꿈꿉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상상과 아우름의 바다.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의 바다입니다.”

한 씨는 몇년 전부터 '역사인물'에 전착하고 있다. 정약전을 다뤘던 '혹산도 하늘 길'을 시작으로 '초의', '원효', '추사', '다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한 씨의 표현처럼 '작가로 살고, 인물도 살아야 하는' 역사 인물 소설은 보통의 내공이 아니고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인물 관련 소설을 쓸 때는 왜 이 시대에 하필 그 인물이나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해요. 사료 뒤져서 고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곡도 많이 안되구요. 당시의 역사뿐 아니라, 신화화, 정신분석까지 다 다뤄야해요. 조선 최고의 지성인인 추사를 다룰 땐 사서 구경을 알아야하고 약전을 쓸 땐 동양철학을 다시 공부했죠.”

한 씨가 김영사로부터 '초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요청받은 건 당연했다. 일찍이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통해 불교를 깨닫고 있었고 이미 '차(茶)'에 관한 저서를 펴낸 정도로 차에 관해 일가견이 있었던 그에게 '초의'는 더 없이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한 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과감히 '획'을 긋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결단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선생을 접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 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둘째지만 8남매의 장남 노릇을 했어요.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내 새끼들은 어떻게 키우겠다 싶어 무작정 상경했죠.”



장흥 해산토굴 앞에 문을 연 '한승원 문학학교-달 길의 집' 전경

'바다' 소재 이어 '역사인물'에 전착  
이젠 기념비적인 작품 써야 할때

소설가 역할은 꿈을 심어주는 것  
장흥 역불산 다룬 작품 출간 예정

서울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게 '불의 딸'이었고 '아재아재바라아재'가 영화화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죠. 열심히 하면 글을 써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나를 믿었어요.”

서라벌에대 졸업 후 장흥 국민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던 한 씨는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술 사주고 닭 잡아주는 데 재미들려 글 쓰는 건 잊고 싶었다. 어느날 연구수업 참관차 읍내에 갔다 '현대문학'에 당시 대학 동기였던 이문구와 고향 선배 송기숙이 딱하니 등단한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바로 가서 머리 뺏박 깎아버리고, 교사들이 숙직실에서 하던 나이롱 뽕도 딱 끊고 죽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등단작 '목선'이었죠. 해도 해도 안되면 집어치우고 새로운 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내 성격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죠. 지금까지 소설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서울에 계속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한 씨는 '해산토굴'에서 장문란 10여년 넘게 써낸 정도로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글을 쓰는 한 씨는 건강을 위해 요가와 반신욕을 한다. 그가 꼭 보는 TV 프로그램은 '동물의 왕국'.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원초적인 삶과 더불어 먹고 먹히는 그들의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씨는 문학가족이다. 아들 동민씨와 딸 감씨가 소설을 쓰고 있고 사위 역시 문학평론가로 활동중이다.

인터뷰 내내 한 씨는 소설 쓰는 일이 참 고단한 작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 중 한놈은 소설을 써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냐고 물었을 때 한 씨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소설가에 대해 쓴 말을 인용했다. “한심한 영혼아, 너는 돈을 주고 빵과 고기를 사먹는 게 아니라 하얀 종이를 꺼내서 빵과 포도주라고 쓰고 종이를 먹는구나.”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소설가라는 말이지.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소설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려워도 소설이 읽히는 건 현실적인 아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식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씨는 소설가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늘 짧게 살려고 애쓴다. 조선대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젊은이들의 감각과 정서를 만날 수 있어 행복하고, 음악도 쉼 없이 사하라브라이트만을 즐겨듣는다며 웃었다.

“지난해 이창준 선생을 떠나보내고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수확을 게을리 해서 안 되겠다구나' 생각했어. 자식들에게도 그러죠. 나는 살아 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거라고, 토굴 속에 나를 가두고, 나의 사업(글쓰기)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곤 하죠.”

한 씨의 지칠 줄 모르는 생산력은 3월께 장흥 역불산을 소재로 미륵부처에 관해 쓴 작품으로 이어진다. 또 역사인물 찾기도 계속된다. 현재 또 한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건 영업 비밀”이라며 한씨는 웃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약 력

▲1939년 장흥 출생 ▲장흥고 졸업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1966년 대한일보 소설 '목선' 당선 등단 ▲김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한국소설문학상 등 수상 ▲동신중교사 역임, 현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초빙교수 ▲대표작 '아재아재바라아재', '다산', '초의', '원효', '혹산도 하늘길', '망명구리배', '해산 가는 길', '해변의 길손' 등 다수

교육대/서울대/연고대와 명문대 합격을 위한 재수생 전문 중립반 경주알등학원의 재수생 선행학습반 / 예비고1,2,3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반 안내

2009년 재수생 중심의 특강을 위한 대수능 선행 학습반 모집

개강 1월 21일(일)

신,성,수,중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반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주알등학원

1월 5일 1월 3일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

1월 5일 1월 3일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